한국학 제45권 제1호 통권 166호 81-115쪽
doi: 10.25024/ksq.45.1.202203.81

역대 한시 유수대(流水對)의 창작 양상

김태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미학 전공
suri4w@aks.ac.kr

Ⅰ. 머리말
Ⅱ. 유수대의 본질과 요건
Ⅲ. 유수대의 종류와 양상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우리의 시가비평사 자료에 있어서 유수대(流水對)에 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체로 희미한 그 자취를 한 가지 들자면, 허균(許筠)이 노수신(盧守愼)의 '시서례(詩書禮) 배움을 마치지 못하여, 사십구(四十九) 해를 그르쳤구나.'[詩書禮學未, 四十九年非.]라는 대련(對聯)에 붙여서 '기이(奇異)한 대우(對偶)다.'라고 비평한 사례가 보이니[1], 이것은 '學未'라는 사건과 '年非'라는 사건이 특히 인과(因果) 관계로 짝을 이루어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지면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또한 전후의 순서를 뒤바꿀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보통의 대장(對仗)과 크게 다름을 지적한 것이다. 만약에 전후의 순서를 바꾸어 '사십구 해를 그르쳐, 시서례 배움을 마치지 못했다.'[四十九年非, 詩書禮學未.]라고 말하면, 이것은 이전의 의미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낳는다.

율시에 쓰이는 보통의 대장은 평행(平行)하는 두 가지 사건으로 짝을 이룬다. 이들의 위치는 서로 뒤바꿀 수 있으니, 출구(出句)의 위치를 바꾸어 대구(對句)로 만들고 대구의 위치를 바꾸어 출구로 삼아도 전체의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 예컨대 이색(李穡)의 '강물은 아스라이 흐르고, 산자락 구름은 드넓게 떠간다.'[江水悠悠去, 山雲浩浩浮.]라는 대련에 있어서 '江水去'라는 사건과 '山雲浮'라는 사건은 전후의 순서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고정되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2] 전후의 순서를 바꾸어 '산자락

1 許筠, 『國朝詩刪』(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소장 필사본: 고811.1085허17a) 卷5-1a. 「[盧守愼]別白文二生」 頷聯: "奇對." ※莽蕩乾坤阻, 蕭條性命微. […] 露菊憑烏几, 秋蟲掩竹扉. 此時文白至, 三宿乃言歸.

2 李穡, 『牧隱詩藁』 卷23-9a. 「有懷舊遊」 함련. ※餘生甘寂寞, 萬事只歸休. […] 低頭思往事, 屈指數同游. 少壯無由再, 高歌散百憂.

구름은 드넓게 떠가고, 강물은 아스라이 흐른다.'라고 말해도, 전체의 의미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노수신의 저 대련은 이색의 대련과 다르게 의미가 인과 관계로 엮이어 출구와 대구의 위치를 뒤바꿀 수 없으니, 뒤바꿀 양이면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이루게 되면서 당초의 의미를 잃는다. 이러한 유형의 대장을 유수대라고 이른다. 그런데 허균은 이러한 유형의 대장이 지니는 표현 방식의 특성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마침내 이것을 곧 유수대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을 판별할 만한 견식은 이미 가지고 있어도 명칭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 오언율시의 대련 가운데에는 열 개의 문자로 하나의 의사(意思)를 이루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십자격'(十字格)이라고 이른다. 당시(唐詩)의 '우리는 양수(襄水) 굽이에 사노니, 아득히 초(楚)나라 구름 밖에 떨어져 있구나.'[我家襄水曲, 遙隔楚雲端.]와 같은 대련이나 '오로지 돌아가는 손을 보내는 때에나, 다시 이렇듯 고향(故鄕)을 바라다본다.'[聊因送歸客, 更此望鄕關.]'와 같은 대련이 이것이다.[3]

허균과 더불어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이수광의 견해로 보건대 유수대라고 하는 명칭은 당시에 사용되지 않았던 듯하다. 유수대라고 하는 명칭은 실제로 허균과 동년배인 명(明)나라 말기의 문인 호진형(胡震亨)이 편찬한

---

3 李睟光, 『芝峯類說』(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한古朝91-50) 卷9-9b. 「文章部二·詩法」: "五言律詩, 於對聯中十字作一意, 謂之十字格. 如唐詩'我家襄水曲, 遙隔楚雲端.', '聊因送歸客, 更此望鄕關.', 是也." ※이수광의 견해는 본디 채몽필(蔡夢弼)의 시화에서 나왔고, 채몽필의 견해는 또한 갈립방(葛立方)의 시화에서 나왔다. 蔡夢弼, 『草堂詩話』 卷下-8a. "丹陽葛常之韻語陽秋曰, 五言律詩於對聯中十字作一意, 詩家謂之十字格."; 葛立方, 『韻語陽秋』 卷1-4b. "梅聖俞五字律詩, 於對聯中十字作一意處甚多. […] 詩家謂之十字格, 今人用此格者殊少也."

『당음계첨』(唐音癸籤)에 그 용례가 처음 나온다.[4] 그러나 이수광이 여기서 말하는 '十字格'은 또한 오언율시에 적용된 유수대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수광의 견해는 비록 유수대라고 하는 명칭은 쓰지 않았어도 그것의 예술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만하다.

엄우(嚴羽)의 『창랑시화』(滄浪詩話)는 전후로 놓인 두 시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의사(意思)를 이루어 서로 의존하는 현상을 '十字對'·'十字句'와 '十四字對'·'十四字句'로 구분하는 견해를 보였다.[5] 요점은 유수대와 유수구를 오언시와 칠언시의 영역에서 제가끔 예시하는 데 있었다. 이수광과 허균은 『창랑시화』의 몇 가지 대목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었던 터이니, 아마도 두 사람은 엄우의 저러한 견해를 이미 참조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용어도 달라도 그 용어가 지시하는 바의 대상을 판별할 만한 견식은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유수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출구와 대구가 상호 필연적 관계로 의존하고 있어서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함부로 생략할 수 없고 또한 그 순서가 특수한 논리적 관계에 따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전후의 위치를 함부로 도치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율시의 대련에 있어서 출구와 대구가 서로 의존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것이나, 그것이 궁극의 대우를 이루어 생략과 도치가 불가능한 경지에 이르기는 어렵다. 이러한 대우는 인공(人工)의 의미를 이미 벗어난 천연(天然)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은 모든 대우의 예술적 이상인 것이다.

---

4 胡震亨, 『唐音癸籤』 卷4-5b. 「法微三」: "流水對 - 嚴羽卿以劉愼虛'滄浪千萬里, 日夜一孤舟.'爲十字格, 劉長卿'江客不堪頻北望, 塞鴻何事又南飛.'爲十四字格, 謂兩句只一意也, 盖流水對耳."

5 嚴羽, 『滄浪詩話』 單卷-9b. 「詩體」: "有十字對[劉愼虛: 滄浪千萬里, 日夜一孤舟.], 有十字句[常建: 一徑通幽處, 禪房花木深, 等是也.], 有十四字對[劉長卿: 江客不堪頻北望, 塞鴻何事又南飛, 是也.], 有十四字句[崔顥: 黃鶴一去不復返, 白云千載空悠悠. 又太白: 鸚鵡西飛隴山去, 芳洲之樹何青青, 是也.]."

유수대에 관한 비평적 논의가 희박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시가예술사 자료는 유수대의 거의 모든 종류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창작 양상을 보인다. 그처럼 다양한 작품이 있었던 만큼 유수대에 관한 심미 인식도 매우 깊었을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유수대의 미적 본질을 구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강민호(2013)의 연구는 여기에 부응하는 노작으로서 유일한 본보기라고 할 것이나[6], 중국의 시가예술사 자료를 다루었을 뿐이다.

중국의 경우는 일반적 대우에 관한 연구만 아니라 유수대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7]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유수대에 관한 연구의 사례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일반적 대우에 관한 연구도 조종업(1969·1970)과 김상홍(1992) 등에 그쳐서 매우 드물다.[8] 본고는 이러한 아쉬움에서 우리의 시가예술사 자료를 토대로 유수대의 미적 본질과 그 창작 양상을 고찰하는 것으로써 작성의 목표를 삼는다.

Ⅱ. 유수대의 본질과 요건

1. 필연적 상호 의존과 자연성의 추구

---

6 강민호, 「流水對의 美學 硏究」, 『中國文學』 제76집(2013), 43~67쪽.

7 譚汝爲, 「"流水對"辨誤」, 『中國語言文學資料信息』 1999年 2期, 85~86頁; 孟繁穎, 「論流水對」, 『綏化學院學報』 2008年 6期, 110~112頁; 羅積勇·張鵬飛, 「流水對類型新論」, 『武漢大學學報』 2009年 1期, 72~78頁; 張靜·唐元, 「論經典詩法"流水對"的歷史發展源流」, 『中國韻文學刊』 31卷 2期(2017), 57~60頁.

8 趙鍾業, 「對偶(對句)의 機能硏究」 (1), 『韓國言語文學』 제6집(1969), 75~91쪽; 趙鍾業, 「對偶(對句)의 機能硏究」 (2), 『韓國言語文學』 제8·9집(1970), 265~284쪽; 金相洪, 「漢詩의 對仗論」, 『漢文學論集』 제10집(1992), 3~36쪽.

유수대는 형식상으로 보면 전후로 놓인 두 시구가 반드시 대우를 이루어야 하고, 내용상으로 보면 두 시구에 담긴 의사가 흐르는 물처럼 이어져 실제로는 하나의 시구나 다름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유수대라고 할 수 있으니,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다만 유수구(流水句)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유수대는 유수구이면서 또한 대우를 이루고 있는 형식이라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율시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다음과 같은 작품을 그 전형적 사례로 제시할 만하다.

海內誰憐海外人, 해내의 누가 해외 이방인을 어여삐 여길까마는,
問津何處是通津. 어디가 요직으로 곧장 가는 길인지 찾아 헤맸다.
本求食祿非求利, 애초에 식록을 바람은 명리를 바람이 아니요,
只爲榮親不爲身.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지 내 몸을 위함이 아니다.
客路離愁江上雨, 여로의 헤어지는 설움은 강안의 빗발 속에 잠기고,
故園歸夢日邊春.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꿈은 장안(長安)의 봄날에 깊어라.
濟川幸遇恩波廣, 직무에 있다가 다행히 은택을 만나면[9],
願濯凡纓十載塵. 하찮은 갓끈의 십년 묵은 먼지를 씻고자 바란다.[10]

최치원(崔致遠)이 당(唐)나라 관직에서 이제는 물러나 신라로 돌아갈 뜻을 밝히는 시이다. 함련은 특히 자신이 요직을 얻으려 애쓴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本求食祿'이라는 한 개의 주어에 '非求利'와 '只爲榮親' 및 '不爲身'이라는 세 개의 술어가 동등한 지위로 연속되는 문장 구조를 보인다. 그럼에도

9 원문의 "濟川"은 본디 제왕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직임을 비유하는 말이나, 최치원은 이것을 단순히 관직에 보임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崔致遠, 『桂苑筆耕集』 卷17-12a. 「謝令從軍狀」: "蹇足無堪, 敢望維駒之念, 麾姿何幸, 遽叨泛鷁之榮. 況當泣路之時, 永荷濟川之賜, 下情無任感戴欣躍兢惕之至."

10 崔致遠, 『桂苑筆耕集』 卷20-7b. 「陳情上太尉詩」.

불구하고 단어의 품사와 그 결합 양상을 따지면, '本求'·'只爲'와 '食祿'·'榮親'과 '非求利'·'不爲身'이 모두 완전한 대장을 이룬다. 심층의 문법적 결합 관계도 두 시구가 모두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절과 형용사절의 결합 구조를 보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本求食祿'이라는 주어와 '只爲榮親'이라는 술어다. 주어와 술어가 비록 두 시구로 나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공동으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바로서 어느 한 쪽도 결여될 수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이들은 '애초에 식록을 바람은 오로지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사를 이루어 서로 의존하는 관계인 것이다. 함련의 이러한 결속력은 뒤따라오는 경련의 대장에 전절의 동력을 한층 더하는 효과를 낳는다. 최치원의 이 진정시와 아래의 증별시는 함련과 경련의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

人事盛還衰, 인사는 왕성하다가도 다시 쇠미해지니,
浮生實可悲. 부생은 참으로 서글퍼 할 만하다.
誰知天上曲, 뉘 알았으랴? 천상의 곡조를
來向海邊吹. 바닷가에서 취주할 줄을?
水殿看花處, 물가 전각에서 꽃을 보던 곳,
風欞對月時. 바깥 난간에서 달을 마주하던 때여.
攀髯今已矣, 선왕은 이제 뵈올 길 없어,
與爾淚雙垂. 그대와 더불어 두 줄기 눈물을 흘린다.[11]

함련의 두 시구는 공동으로 하나의 의사를 이루고 있으며, 경련의 두 시구는 또한 동사나 형용사에 속하는 서술어가 없이 오로지 명사에 속하는

11 崔致遠, 『孤雲先生文集』 卷1-5a. 「旅遊唐城贈先王樂官」.

상황어로 시구를 마쳤다. 그런데 여기서 함련은 공대(工對)가 아니다. 출구에 보이는 '天上曲'의 '曲'은 대구의 '吹'와 마찬가지로 동사이면서 명사로 쓰인 경우라서 공대가 되지만, 대구에 보이는 '來向'의 '來'는 어떠한 동작의 추향을 표시하는 부사로 쓰인 경우이니 만큼 의문대명사로 쓰인 출구의 '誰'와 더불어 공대를 이루지 못하고 다만 인대(鄰對)를 이룬다. 그러나 유수구로서는 아무런 손색이 없으니, '天上曲'과 그 이하의 구절이 모두 '誰知'의 목적어인 까닭에 두 시구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엮인다.

전후로 놓인 두 시구가 상호 의존적 관계로 엮이되, 유수대와 유수구는 언어적 형식의 균제(均齊) 여부가 다르다. 유수구는 균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쓰이는 위치에 제약이 있으니, 율시의 함련에 쓰이는 때라면 유수구와 유수대의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율시의 경련은 유수구가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유수대가 쓰여야 하는 자리다. 실제로 유수대가 율시에 쓰이는 경우에 그것은 흔히 함련에 놓인다. 다음과 같이 함련과 경련에 모두 유수대를 배치한 작품은 매우 드물다.

夜靜星芒動, 밤은 고요하고 별은 반짝이며,
秋深露氣高. 가을이 깊어져 이슬 기운이 해맑다.
輕寒生枕席, 서늘한 추위가 잠자리에 스치어,
倦夢落江皐. 거칠게 헤매던 꿈이 강가에 그친다.
未泛重陽菊, 중양 술에 국화도 못 띄웠거늘,
誰題九日糕. 구일 떡으로 어떻게 글을 지으랴?
孤懷愁不寐, 쓸쓸한 마음, 시름에 잠 못 이루되,
奈復曉鷄號. 무엇하러 새벽닭은 또 우는지.[12]

12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卷8-5b. 「秋曉作」.

김인후(金麟厚)의 가을 감회시다. 함련은 추위에 문득 꿈을 깨이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정경을 그렸다. 출구와 대구가 인과 관계로 짝을 지었다. 함련의 이것도 빼어난 대장에 속하되, 경련의 대장도 그에 못잖은 경지다. 경련에 나오는 '重陽菊'과 '九日餻'는 한 가지 풍속을 가리키는 소재라서 자칫 합장(合掌)에 속하는 대장이 되었을 듯한데, 그것을 도리어 점층(漸層) 관계로 짝을 맺어서 마침내 유수대를 이루는 솜씨를 보였다. 국화를 술에 띄우는 일과 떡을 만들어 먹는 일은 어렵고 쉬운 정도에 따라 층위의 차이가 있으니, 막걸리에 꽃잎만 따서 띄워도 성사가 되는 전자에 비해서 후자는 그 과정과 절차가 한층 더 어렵다. 여기에 착안하여 '誰題'를 '未泛'의 상층에 두었다.

유수대는 율시가 요구하는 바의 격률을 충실히 지키는 가운데 유수구의 심미적 효과를 아울러 얻고자 하는 창의적 설비라고 할 만하다. 유수구는 대체로 구어(口語)의 자연스러운 어법을 그대로 살리는 까닭에 전후로 놓인 두 시구가 어떠한 그침이나 끊어짐도 없이 한 호흡으로 이어진다. 무엇을 깎아서 맞추는 것이 없이 지극한 자연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유수구를 이루는 계기는 전후로 놓인 두 시구의 어느 한 쪽을 함부로 생략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필연적 상호 의존에 있었다. 유수대를 이루는 계기도 핵심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출구와 대구에 작용하는 상호 의존의 필연성이야말로 모든 유수대의 본질적 원리다.

2. 균제와 연관의 통일

유수대의 출구와 대구는 흐르는 물처럼 이어져 공동으로 하나의 의사를 이루는 까닭에 두 시구는 어느 것이나 각자로 독립해서는 완전한 개체로 존재하지 못한다. 만약에 둘 사이를 분할하게 되면 각자는 다만 불완전한

시구로 남는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평행대(平行對)라고 부르는 일반적 대우와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평행대는 출구와 대구의 위치를 서로 뒤바꾸어 놓아도 무방하고, 여타의 시구와 결합시켜 새로운 대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感時花濺淚, 시절을 아파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恨別鳥驚心. 이별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烽火連三月, 봉화가 석 달을 줄곧 이어지니,
家書抵萬金. 집에서 오는 편지는 받아보기 만금 값이다.[13]

예컨대 두보의 「춘망」(春望) 함련과 같은 평행대는 출구와 대구의 위치를 서로 뒤바꾸어 앞에서 먼저 이별을 말하고 뒤이어 시절을 말하는 순서로 놓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끔 하나씩 끊어다가 여타의 시구와 결합시켜 새로운 대우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은 두보의 「동둔북엄」(東屯北崦) 경련을 「춘망」 함련과 임의로 교차시켜 새롭게 두 벌의 대련을 만들어 본 예시다.[14]

看松露滴身, 솔을 쳐다보니 이슬이 몸에 떨어지고,
感時花濺淚. 시절을 아파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한다.

步壑風吹面, 골짜기를 걷자니 바람이 낯으로 불고,
恨別鳥驚心. 이별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

13 杜甫, 『杜詩詳註』 卷4-50b. 「春望」 함련·경련.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

14 杜甫, 『杜詩詳註』 卷22-34b. 「東屯北崦」: "盜賊浮生困, 誅求異俗貧. 空村惟見鳥, 落日未逢人. […] 遠山回白首, 戰地有黃塵."

상련의 '滴'·'濺'과 하련의 '吹'·'驚'이 모두 시인의 신체를 목적어로 삼는다. 서정의 농도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양자의 출구와 대구는 그 문법적 결합 관계가 거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지니는 까닭에 원작의 시구를 위와 같이 서로 교차시켜 놓아도 평측이 어긋나게 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보의 「춘망」 경련과 같은 유수대의 출구와 대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우선은 두 시구의 논리적 관계가 역순의 도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평행대는 그것이 정대(正對)에 속하여 병렬 관계를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반대(反對)에 속하여 대조 관계를 보이는 것이든 대칭(對稱)을 이루는 두 시구의 호응(呼應)에 말미암아 유력한 기세와 정연한 균제미(均齊美) 및 표현의 명료성을 얻는다. 대칭을 이루는 두 시구의 호응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일수록 그러한 예술적 효과는 강력한 감화력(感化力)을 더한다. 그러나 두보의 「춘망」 함련과 같이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대우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한자리에서 두 벌이나 거듭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율시의 대장이 자연성과 필연성을 지니게 되려면 대칭을 이루는 쌍방이 마치 원앙(鴛鴦)과 같이 독립성과 의존성을 동시에 가지는 상수(相須)의 관계라야 한다. 이러한 대장의 출구와 대구는 어느 한 쪽이 없으면 다른 한 쪽이 거의 자기결핍의 상태로 바뀐다. 아울러 두 시구는 하나로 아예 달라붙지도 않고 둘로 아주 떨어져 나가지도 않는다. 신발이나 장갑처럼 두 짝이면서도 언제나 한 벌로 함께 다녀야만 온전히 쓰인다. 아래의 주장은 대장의 본질이 그처럼 자연성과 필연성에 기초한 사물의 종합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對仗이란 한 聯의 出句와 對句 간에 異質 또는 反對가 되는 사물의 對照反映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것으로, 출구와 대구 사이의 대장이 영원히 대립하거나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綜合되어 表現에 있어서의 自己完結을 이루는 것이 그 본질이다.[15]

평행대의 관건은 대칭을 이루는 사물이 저절로 상호 보완의 작용을 일으켜 조화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연한 균제미와 안정감은 자취를 감추고 도리어 엄격한 양안 대치의 형국이 삭막하고 답답한 정체감을 부른다. 이것은 특히 율시가 저지르기 쉬운 폐단에 속하며, 대개는 불가피하게 겪는다. 율시는 두 벌의 대장을 정규적 형식으로 요구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하나의 작품에 두 벌의 평행대를 세우는 것은 자칫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白日依山盡, 태양은 산등성이에 비껴 저물고,
黃河入海流. 황하는 바다로 굽이쳐 흐른다.
欲窮千里目, 천리 밖 끝까지 바라다보고 싶어서,
更上一層樓. 누각을 다시 또 한 층 오른다.[16]

왕지환(王之渙)의 관작루(鸛雀樓) 소회다. 하나의 작품에 두 벌의 대우를 내세운 절구다. 전련은 척폭만리(尺幅萬里)의 장관을 담았다. 산서성(山西省) 포주(蒲州)에 있었던 관작루의 위치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았을 테지만, 시인은 아득한 지평선 너머로 굽이쳐 가는 황하(黃河)의 거센 추동력이 마침내 치달려 이르게 되는 지점을 그윽한 눈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상층으

15 申用浩, 「漢詩와 對仗」, 『漢詩形式論』(전통문화연구회, 2001), 83~84쪽.
16 高棅, 『唐詩品彙』 卷40-7b. 「[王之渙]登鸛雀樓」.

로 또 한 층만 오르면 이내 황해(黃海)가 내다보일 듯싶다. 함지(咸池)를 짐작하기란 또한 어렵지 않아 보인다. 후련은 이처럼 벅차오르는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표출한 구어다. 어느덧 누각을 다시 또 한 층 오르는, 이것은 누구라도 저절로 가지게 되는 욕구다.

전련은 천문류 명사와 지리류 명사가 대응하는 인대로서 평행대가 쓰였고, 후련은 형체류 명사와 궁실류 명사가 대응하는 관대(寬對)로서 유수대가 쓰였다. 후련은 두 시구가 대칭을 이루되, 조탁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전련과 같은 형태의 평행대가 후련에 거듭 쓰였을 양이면 척폭 만리의 장관을 담았던 전련의 기세는 정체되어 유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화면의 좌우로 뻗치던 태양과 황하의 웅대한 대장정도 후련에 뒤따라 놓이는 사물에 부딪혀 자잘하게 조각이 나는 파편화를 겪거나 또는 천지간의 독점적 지위를 적잖이 내어주게 되는 주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두보의 '봉화가 석 달을 줄곧 이어진다.'[烽火連三月.]는 시절을 아파하고 이별을 슬퍼하는 사건의 내막을 이루는 바로서 집에서 오는 편지를 만금 값에 받잡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왕지환의 '천리 밖 끝까지 바라다보고 싶다.'[欲窮千里目.]는 지평선 너머로 굽이쳐 가는 황하를 그윽이 바라보는 가운데 생기는 바로서 저절로 누각을 다시 또 한 층 오르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전련과 후련은 어느 것도 고립된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련의 평행대는 사물의 다양성을 대립 관계에 따라 배열하여 사건의 전체성을 완성하는 종합의 결과다. 후련의 유수대는 사건의 실상을 내연 관계에 따라 배열하여 사물의 상관성을 적시하고 의사를 완결하는 통합의 결과다.

평행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배열의 균제다. 유수대도 표면상으로는 배열의 균제를 보인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의미의 연관(連貫)이 핵심적 기제다. 의미의 연관이 흐르는 물처럼 유동(流動)하는 기세를 낳는다. 균제와 연관의

통일은 유수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유수대는 평행대를 잇달아 사용하는 데서 생기는 부자연성과 정체성의 폐단을 소거하는 예술적 장치로 쓰였다. 율시의 격률을 따르는 가운데에도 격률의 제약을 익숙히 능가하는 표현이 이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유수대의 창조적 활용을 계기로 근체시 양식의 예술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Ⅲ. 유수대의 종류와 양상

1. 단구형 유수대의 부분 분할 방식

유수대는 전후로 놓인 두 시구에 적용된 문장 구조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단구형과 복구형으로 나뉜다. 단구형은 본디 하나의 문장이 공교롭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출구와 대구로 배열된 유형을 말한다. 복구형은 출구와 대구가 저마다 하나의 문장을 이루되 두 시구가 일정한 논리적 관계에 의하여 밀접하게 접속된 유형을 말한다. 단구형은 출구와 대구에 적용된 부분 분할의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복구형은 출구와 대구의 접속 관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그러면 복구형은 뒤에서 따로 다루고, 단구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단구형 유수대를 이루는 부분 분할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개는 주어부를 출구에 남기고 술어부의 일부나 전부를 따로 떼어서 대구로 만드는 서술어 분할 방식이 가장 흔하다. 이밖에 술어부의 목적절을 출구와 대구에 나누어 배치하는 목적어 분할 방식도 보이고, 부사구나 부사절을 따로 내세워 출구로 만드는 부사어 분할 방식도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최치원의 진정시는 술어의 일부를 출구에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대구로

삼았던 사례다. 다음은 술어부의 전부를 따로 떼어서 대구로 만드는 서술어 분할 방식의 대표적 사례다.

清平山水冠東濱, 청평은 산수가 좋기로 해동의 으뜸,
邂逅相逢見故人. 뜻하지 않게 만나 옛 벗을 본다.
三十年前同擢第, 30년 전에 함께 뽑힌 급제자,
一千里外各栖身. 1천리 밖에 제가끔 사는 신세로구나.
浮雲入洞曾無累, 뜬구름 골에 들어도 일찍이 이끌림 없었고,
明月當溪不染塵. 밝은 달 시내에 비치어 육진(六塵)에 물들지 않는다.
擊目忘言良久處, 마주한 채 오랫동안 말을 잊은 자리,
淡然相照舊精神. 덤덤히 옛 정신을 비추고만 앉았다.[17]

청평거사(淸平居士) 이자현(李資玄)의 은거를 기리는 곽여(郭輿)의 기증이다. 함련은 보통의 평행대와 마찬가지로 출구와 대구가 정교한 대장을 이루는 듯싶다. 그러나 두 시구는 선후 관계로 연접하여 실제로는 유수대를 이루니, 문법적으로는 대구의 전체가 하나의 서술절이 되어 출구의 술어로 기능하는 문장 구조를 보인다. 정사룡의 '열두 달 보름 가운데 오늘 밤이 으뜸, 1천리 밖 늙은 신하의 외로움이여.'[十二圓中今夜最, 一千里外老臣孤.]는 이러한 곽여의 구법(句法)을 차용한 것이다.[18]

출구를 주어로 삼고 대구를 술어로 삼아 유수대를 이루는 구법은 이달(李達)의 '홀로 말을 타고 가는 손은 구슬을 놀리는 선인(仙人)을 미처 보지 못한다.'[獨行騎馬客, 不見弄珠人.]와 같이 동사 서술어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다.[19] 그러나 그 기본형은 두보의 '강한(江漢)에서 돌아가고자 생각하는

17 徐居正, 『東文選』 卷12-14b. 「[郭輿]贈淸平李居士」.
18 鄭士龍, 『湖陰雜稿』 卷3-19a. 「步月」 함련. ※涼飆颯颯動檣烏, 桂影初分闊岸隅. […] 洗空露重團銀闕, 息纊波恬湛玉壺. 回首瓊樓川路廣, 不勝寒氣襲淸都.
19 李達, 『蓀谷詩集』 卷3-7a. 「襄陽道中」 함련. ※日暮襄陽道, 煙沈漢水濱. […] 下渚多靑草,

나그네, 하늘과 땅 사이의 한낱 썩은 선비로구나.'[江漢思歸客, 乾坤一腐儒.]와 같이 명사 서술어를 직결시키는 것이다.[20]

茅茨不翦亂交加, 이엉은 자르지 않은 채 얼기설기 이었고,
築土爲階面勢斜. 흙을 쌓아 섬돌을 만드니 형세가 기울었다.
棲鳥聖知來宿處, 깃들일 새들은 익히 알고 와서 자는 곳,
野人驚問是誰家. 시골 사람들은 뉘 집인가 하고 놀라 묻는다.
靑溪窈窕緣門過, 시냇물은 고즈넉이 사립을 스쳐 지나고,
碧樹玲瓏向戶遮. 나무숲은 산뜻하게 지게를 마주하고 우거졌다.
出見江山如絶域, 밖에 나가서 강산을 보면 외딴 곳 같으나,
閉門還似舊生涯. 문을 닫으면 오히려 옛 생애만 같구나.[21]

정도전(鄭道傳)이 전라도 나주 회진현(會津縣) 소재동(消災洞)에 있었던 자신의 적거(謫居)를 읊었다. 앞에서 살펴본 곽여의 기증시와 마찬가지로 경련은 평행대를 세우고 함련은 유수대를 세웠다. 그러나 함련은 목적어 분할 방식을 보이는 점에서 유수대의 속성이 조금 다르다. 함련의 주절은 '野人驚問'이고, 이러한 주절의 목적절에 해당하는 바로서 '棲鳥聖知來宿處'와 '是誰家'는 본디 주어와 술어의 관계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요소다. 여기서 전자를 따로 떼어서 출구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구법은 매우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대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쓰인다.

中洲采白蘋. 徘徊大堤上, 覽古一傷神. 함련의 '구슬을 놀리는 선인'[弄珠人]은 왕적(王適)의 시에서 인용한 비유로서 곧 매화(梅花)를 뜻한다. 王安石, 『唐百家詩選』 卷1-5b. 「[王適]江濱梅」: "忽見寒梅樹, 開花漢水濱. 不知春色早, 疑是弄珠人."

20 杜甫, 『杜詩詳註』 卷23-18a. 「江漢」 수련. ※[…] 片雲天共遠, 永夜月同孤. 落日心猶壯, 秋風病欲疏. 古來存老馬, 不必取長途.

21 鄭道傳, 『三峯集』 卷2-26b. 「草舍」.

島竄已卄載, 섬으로 귀양을 나온 지도 이미 스무 해,
峽移還二期. 골짜기에 옮긴 것도 두 돌이다.
那堪會面地, 차마 어찌 겪으랴? 모이던 자리가
復作贈行詩. 다시 헤어지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을.
三夜槐安夢, 괴산(槐山)에서 맞이한 꿈결 같은 사흘 밤,
初秋海徼思. 첫가을 진도(珍島)에서 처음 만나던 생각이여!
歸逢相識問, 돌아가 아는 사람 만나면 묻겠지,
顦顇更孤危. 여위어 파리하고 또 외롭고 두려운 나.[22]

노수신이 전라도 진도(珍島)에서 충청도 괴산(槐山)으로 옮기던 자신의 적거에서 지인에게 건네는 증별이다. 함련은 앞에서 살펴본 최치원의 증별시 함련과 더불어 목적어 분할 방식의 단구형 유수대를 대표하는 전형적 사례다. 정도전의 적거시 함련과 마찬가지로 주절의 목적절에서 그 주어에 해당하는 '會面地'를 따로 떼어서 출구에 넣기는 했으나, 노수신의 함련은 주절의 주어가 생략된 채로 '那堪'이라는 술어만 남아서 이하의 목적절을 이끄는 구조다.

목적어 분할 방식의 단구형 유수대에 있어서 주절의 술어는 '見'·'聞'·'知'·'識' 등과 같이 지각의 범주에 관련되어 있는 동사가 흔히 쓰인다. 이직(李稷)의 '뉘 알았으랴? 추위도 아랑곳 않던 푸름이 도리어 가을 풀의 누름과 같이 바뀔 줄이야?'[誰識歲寒翠, 反同秋草黃.]가 그 대표적 사례다.[23] 그런가 하면 '那堪'·'豈意'·'可憐' 등과 같이 의식의 범주에 관련되어 있는 동사도 자주 쓰인다. 조위한(趙緯韓)의 '가련해라. 늘그막에 가서는 소년의 모습이 다시금 없어라.'[可憐臨老日, 無復少年形.]가 그 대표적 사례다.[24]

---

22 盧守愼, 『穌齋先生文集』 卷5-21a. 「別朴夏」.

23 李稷, 『亨齋先生詩集』 卷2-1b. 「病松」 경련. ※百尺蒼髯樹, 曾經幾雪霜. 風枝元崛起, 雲葉半凋傷. […] 猶餘直幹在, 亦足棟明堂.

24 趙緯韓, 『玄谷集』 卷3-14b. 「寒食日在梁子漸家逢吳夢得天賚」 함련. ※令節逢佳友, 他鄉

亳社歸玄鳥, 박읍(亳邑) 사직에서는 현조(玄鳥)가 사라지고,
河舟見白魚. 황하 전선(戰船)으로는 흰 물고기가 뛰어들었다.
還將八條敎, 도리어 8조의 가르침을 가지고,
來作九夷居. 구이(九夷)의 나라에 와서 거주하셨다.
海外無周粟, 해외로서 주(周)나라의 식록(食祿)을 받은 것은 없었으나,
天中有洛書. 세상에는 낙서(洛書)의 법칙이 있었다.
故宮今已沒, 고궁은 이제 이미 자취 없으니,
禾黍似殷墟. 화서(禾黍)의 슬픔은 은허(殷墟)와 같구나.[25]

기자(箕子)의 덕업을 기리는 정두경(鄭斗卿)의 찬송이다. 함련은 부사어 분할 방식의 단구형 유수대를 대표하는 사례다. 여기서 출구의 전치사 '將'과 그 목적어 '八條敎'는 특히 도구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쓰이는 바로서 대구의 '來作'에 종속되는 요소다. 이상은(李商隱)의 '눈물에 젖은 두 소매를 가지고, 창가의 외로운 등불을 마주하고 있구나.'[還將兩袖淚, 同向一窗燈.]는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라고 하겠다.[26]

부사어 분할 방식의 단구형 유수대에 있어서 출구에 놓이는 그 부사구나 부사절은 도구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만 아니라 동반의 뜻을 나타내거나 시간적 경과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보인다. 조태억(趙泰億)의 '소홀히 장인(丈人)과 밤중에 얘기를 나누다, 도리어 어사(御史)의 서릿발 같은 위엄을 잊었다.'[忽與丈人成夜話, 還忘御史挾霜威.]는 동반의 뜻이다.[27] 성여학(成

眼忽靑. […] 艷艷花開岸, 霏霏雨滿庭. 隨緣作好會, 何必促歸軿.

25 鄭斗卿, 『東溟先生集』 卷3-6b. 「箕子祠」.

26 李商隱, 『李義山詩集注』 卷1下-88a. 「別薛巖賓」 제4련. ※曙爽行將拂, 晨淸坐欲凌. 別離眞不那, 風物正相仍. 漫水任誰照, 衰花淺自矜. […] 桂樹乖眞隱, 芸香是小懲. 淸規無以況, 且用玉壺冰.

27 趙泰億, 『謙齋集』 卷3-4b. 「雲峯客舘次贈李繡衣士常彦經丈」 함련. ※南來日覺遠王畿, 嶺嶠雲嵐染客衣. […] 逢迎有數如期合, 驚喜無涯似夢非. 回首晉陽行意速, 星軺未發我先歸.

汝學)의 '중인(衆人)의 버림을 받고는, 군소배(群小輩)를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自從爲衆棄, 無復畏群飛.]는 시간적 경과의 뜻이다.[28]

2. 복구형 유수대와 그 접속 관계

우리는 앞에서 하나의 단문을 두 시구로 분할한 단구형 유수대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술절이나 목적절 및 부사절 등과 같은 성분을 문장의 하위 요소로 지니는 이른바 내포문이 두루 포함되어 있었다. 내포문을 중국어 문법론 연구자 일반은 흔히 단문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한국어 문법론 연구자 일반은 이것을 복문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29] 본고는 중국어 문법론 연구자 일반의 견해를 따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일정한 논리적 관계에 따라 서로 접속되어 있는 복문을 출구와 대구로 분할한 복구형 유수대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복구형 유수대의 출구와 대구가 서로 접속하는 가운데 보여 주는 논리적 관계는 적잖이 다양한 종류에 걸친다. 선후와 인과와 가설 및 점층과 문답의 관계는 순접의 부류다. 전절과 양보의 관계는 역접의 부류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논리적 관계는 모두 종속적 접속의 형태를 띠는 점에서 평행대의 대등적 접속과 크게 다르다. 복구형 유수대의 출구와 대구는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로 상호 의존의 필연성을 유지한다. 대개는 주절을 한정하는 종속절을 출구로 세우며, 순접과 역접을 막론하고 출구와 대구의 위치는

---

28 成汝學,『鶴泉先生集』卷1-30b.「偶成」함련. ※白首渾忘世, 青山獨掩扉. […] 琴謝前腔換, 衣悲故線非. 憂來思竹老, 天末寄當歸.

29 이우철·성윤숙,「중국어 단문 복문의 경계 연구」,『언어과학연구』제61집(2012), 216~223쪽; 全基廷,「중국어와 한국어 복문의 비교」,『中國語文學論集』제112집(2018), 86~93쪽; 유현경,「접속과 내포」,『國語學』제60집(2011), 393~398쪽.

원칙적으로 도치가 불가능하다.

歲暮倦遊客, 벼슬살이 지겨운 세밑의 나그네,
關河山萬重. 변방의 산악은 천만 겹을 둘렀어라.
孤雲隨去馬, 구름은 한 조각 외따로이 가는 말을 따르고,
落葉沒行蹤. 낙엽은 지나간 자취를 지운다.
嶺外餘荒業, 고개 너머에 묵은 밭일을 내버려 둔 채로,
沙邊一釣翁. 모래밭 가에서 낚시질하는 늙은이 하나.
相思明月滿, 밝은 달 차오를 땐 서로 그리워,
夢盡海天東. 바닷가 동녘에 가서 꿈결 그친다.[30]

김정(金淨)이 최수성(崔壽城)을 강릉으로 보내면서 읊은 증별이다. 오래지 않아 기묘사화(己卯士禍)와 신사무옥(辛巳誣獄)이 일어나 심지어는 저승에 이르기까지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는데, 그것을 아직 모르는 채로 오늘은 다만 다시 만날 양으로 한껏 그리움을 지핀다. 함련은 선후 관계로 엮이는 대우다. 나그네가 이미 지나간 일이 있고 나서야 그 자취를 낙엽이 감추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선후 관계로 엮이는 복구형 유수대는 이처럼 출구와 대구의 두 사건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계기적으로 연속되는 경우나 시차가 크더라도 밀접한 사리에 따라 순서상으로 연관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종류다.

예컨대 황정욱(黃廷彧)의 '필마를 내달려 동대문을 나서더니, 절반만 내린 돛 바람에 춘천(春川)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馳出東門一匹馬, 泝洄春水半帆風.]는 계기적으로 연속되는 선후 관계를 보이고[31], 임춘(林椿)의 '하느님이

30 金淨, 『冲庵先生集』 卷3-27a. 「送崔生猿老往臨瀛」.
31 黃廷彧, 『芝川集』 卷2-4a. 「送沈公直忠謙赴春川」 함련. ※淸平山色表關中, 下有昭陽江漢通. […] 送人作郡鬼爭笑, 問舍求田囊久空. 爲語當時勾漏令, 衰顔須借點砂紅.

이미 장길(長吉)을 데리고 가시자, 세상은 벌써 낙천(樂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上帝已敎長吉去, 海山曾待樂天來.]는 순서상으로 연관되는 선후 관계를 보인다.[32] 이러한 선후 관계는 인과 관계와 더불어 논리적 성질이 가장 가깝다.

江觸春樓走, 강물은 봄 맞은 누각 옆을 흐르고,
天和雪嶺圍. 하늘은 눈 덮인 고개를 따스하게 둘렀다.
雲從詩筆湧, 구름은 시 짓는 붓을 따라 피어오르고,
鳥拂酒筵飛. 새들은 술자리 가까이 스치듯 난다.
浮海知今是, 바다에 떠 있는 지금이 옳으니,
趨名悟昨非. 명리를 쫓던 지난날은 그르다.
松風當夕起, 솔바람이 저물녘에 맞추어 일어,
蕭颯動荷衣. 소슬히 불어와 옷자락을 나부낀다.[33]

임억령(林億齡)의 삼척(三陟) 죽서루(竹西樓) 술회다. 시인이 강원도관찰사로 나갔던 59세 무렵에 읊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언중에 염세적 태도가 뚜렷하다. 경련은 일생의 시비를 저울질하는 바로서 인과 관계로 엮이는 대우다. 오늘날과 지난날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옳게 여기면 다른 한 쪽은 반드시 그릇된 것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인과 관계로 엮이는 복구형 유수대는 이처럼 출구와 대구의 두 사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종류다. 출구와 대구의 두 사건은 당연히 계기적으로 연속되어 있거나 또는 밀접한 사리에 따라 순서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선후 관계를 이미 내포하게 마련이다.

---

32 林椿, 『西河先生集』 卷2-9a. 「追悼鄭學士」 함련. ※先生蕭灑出塵埃, 忽歎風前玉樹摧. […] 當年翰墨爲人寶, 高世聲名造物猜. 從此匡廬無賀監, 誰能呼我謫仙才.

33 林億齡, 『石川先生詩集』 卷3-37a. 「登竹棲樓」.

임억령의 저 경련은 출구와 대구의 논리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관계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개는 이건(李健)의 '평범한 새들과는 모습이 다르니, 그래서 뭇짐승들의 습격을 받는 것이다.'[不同凡鳥貌, 故見衆兒侵.]와 같이 'A, 故B' 형식의 관계사를 드러내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34] 그리고 신흠(申欽)의 '재량이 뛰어난 사람은 본디 세상 사람이 꺼리니, 오로지 충의로 임금의 은혜를 입는 탓이다.'[自是高才爲世忌, 秪緣忠憤荷君恩.]와 같이 'A, 緣B' 형식의 관계사를 드러내는 경우도 보인다.[35] 이것은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건이 대구에 나오는 경우다.

寒山朝霽好, 겨울 산봉우리에 아침 하늘이 맑아,
一望興悠哉. 바라만 보아도 흥취가 절로 난다.
不有騎牛過, 그대가 소를 타고 들르지 않았다면,
那成並馬來. 어떻게 나란히 말을 몰고 올 수 있었으랴?
路侵氷澗轉, 산길은 얼어붙은 시내 곁으로 돌아들고,
菴對雪峰開. 암자는 눈 덮인 봉우리를 마주하고 있다.
偶値高僧講, 우연히 고승을 만나 강론을 하느라,
因之宿未廻. 그로 머물러 자고 돌아가지 않는다.[36]

김창협(金昌協)의 보문암(普門庵) 기행이다. 영평현(永平縣) 응암(鷹巖)에 거주하던 29세 무렵의 소작으로 보인다. 함련은 가설 관계로 엮이는 대우다.

---

34 李健, 『葵窓遺稿』 卷4-8b. 「歎鴛雛爲老鼠之害」 함련. ※自是一微禽, 猶存貞烈心. […] 六翮未曾勁, 孤魂先已沈. 從來驕悍物, 殺害最難禁.

35 申欽, 『象村稿』 卷13-7b. 「外舅淸江公謫麟山而卒, 距余所寓海村僅數十里, 追感當時事賦之.」 함련. ※憶曾相送國南門, 拭盡征衫淚眼昏. […] 天涯鵬舍餘陳跡, 歲暮牛車返故原. 更向西風燒一瓣, 楓林恐有未歸魂.

36 金昌協, 『農巖集』 卷1-23b. 「雪後村老金公聲大騎牛來過, 同訪白雲山, 宿普門菴, 有僧翁然方與其徒開講」.

그런데 논리적 성질을 따지면, 이러한 종류의 가정은 특히 인과 관계와 더불어 매우 가까운 지점을 보인다. 본래의 사정은 '그대가 소를 타고 들렀다.'는 것이고, 둘이서 나란히 말을 몰고 온 사건은 실제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설 관계로 엮이는 복구형 유수대는 대개가 이처럼 기정의 사실을 단순히 화법의 차원에서 만약의 사실로 반전시켜 얻는다.

이황(李滉)의 '높고도 빼어난 곳이 있지 않았다면, 구름과 물이 가득한 별천지를 어찌 알았으랴?'[不有妙高處, 焉知雲水天.]는 높고도 빼어난 곳이 있었던 까닭에 구름과 물이 가득한 별천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고[37], 이인엽(李寅燁)의 '오늘밤 저 달마저 없었을 양이면, 타향의 나그네는 시름에 겨워 괴로웠으리.'[若無今夜月, 愁殺異鄉人.]는 보름달이나마 휘영청 떠 있었던 까닭에 타향에서 시름을 덜었다는 뜻이다.[38] 이밖에 모종의 기대나 우려를 가정하는 경우도 가설 관계를 이룬다.

露下井梧葉, 우물가 오동잎에 이슬은 지고,
風高庭樹枝. 안뜰 나무의 가지에 바람은 매섭다.
已堪悲歲暮, 늙음이 서럽기도 하려니와,
況復憶君時. 하물며 또 그대를 그리는 때이랴!
蛩韻喧秋屋, 귀뚜라미 울음은 가을 집안에 그치지 않고,
螢光鬧夜帷. 반딧불이 불빛은 밤 휘장에 요란하다.
沈吟不能寐, 근심하느라 잠들지 못하니,
兩鬢欲成絲. 두 살쩍이 하얗게 쇠려고 한다.[39]

---

37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1-33a. 「朗詠臺」 함련. ※躋攀出風磴, 一眼盡山川. […] 俯仰宇宙間, 峨洋思古賢. 借問擲金聲, 何如沂上絃.

38 李寅燁, 『晦窩詩稿』 卷單-26a. 「中元夜登詠月樓翫月」 제2수 함련. ※秋氣日蕭瑟, 薄遊東海濱. […] 影轉寒山動, 光涵積水新. 淸輝同萬里, 何處是西秦.

39 鄭誧, 『雪谷先生集』 卷上-14a. 「秋夜憶李達中校勘」.

정포(鄭誧)의 회인(懷人)이다. 이달중(李達中)을 그리워하는 가을밤의 정경을 살뜰히 그렸다. 함련은 점층 관계로 엮이는 대우다. 늙음이 서러운 마당에 또한 오래도록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겹친다. 점층 관계로 엮이는 복구형 유수대는 출구와 대구의 관계가 이처럼 서로 밀접한 계기적 공동성을 띠는 가운데 강도·심도 및 범위를 번갈아 더하는 중첩의 형식을 띠는 경우에 성립하는 종류다. 따라서 점층 관계도 인과 관계와 마찬가지로 선후 관계를 자체에 이미 내포하고 있게 마련이다.

예컨대 이규보(李奎報)의 '처음에는 임을 그리는 아가씨처럼 헛헛하더니, 점차로는 안거하는 중처럼 쓸쓸하더라.'[初如蕩蕩懷春女, 漸作寥寥結夏僧.]는 거처의 적막한 상황이 나날이 더욱 깊어지고[40], 이인복(李仁復)의 '위급한 때에는 사직을 평안하게 하더니, 평온한 때에는 또한 신선이 되어 가는구려.'[已向危時安社稷, 更從平地作神仙.]는 인물의 위대한 풍격이 처지에 따라 한층 높아진다.[41] 전자는 심도를 번갈아 더하고, 후자는 범위를 번갈아 더하는 경우다.

有蓬産深谷, 쑥은 깊은 골짜기에 나니,
偏宜出濕田. 축축한 땅에 자라야 가장 알맞다.
如何在庭際, 어째서 뜰 가에 있는가?
定欲近人前. 반드시 사람들 곁에 가까이 하려 함이다.
萬物固知托, 만물이 모두 기댈 곳을 알건만,
吾生良可憐. 나의 삶은 참으로 가엾다.
蓬蒿微陋質, 쑥과 같이 초라한 몸을 하고도,
願侍御爐煙. 화롯불을 받들고자 바란다.[42]

---

40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卷10-6a. 「杜門」 함련. ※爲避人間謗議騰, 杜門高臥髮鬅鬙. […] 兒戲牽衣聊足樂, 客來敲戶不須應. 窮通榮辱皆天賦, 斥鴳何曾羨大鵬.

41 徐居正, 『東文選』 卷15-18b. 「[李仁復]送柳思庵」 함련. ※人間膏火自相煎, 明哲如公史可傳. […] 五湖夢斷烟波綠, 三徑秋深野菊鮮. 媿我未能投紱去, 邇來雙鬢雪飄然.

42 金時習, 『梅月堂詩集』 卷14-15b. 「有蓬」.

김시습의 다북쑥 영물(詠物)이다. 부평과 같이 떠도는 자신의 생애를 쑥보다 못한 양으로 가엾게 여기는 심정을 읊었다. 함련은 문답 관계로 엮이는 대우다. 출구는 질문을 던지고 대구는 그에 따른 회답을 마련하는 방식을 보인다. 문답 관계로 엮이는 복구형 유수대에 있어서 출구의 질문은 대구의 회답에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그 회답은 직접적 제시만 아니라 간접적 제시도 가능하다. 대구의 회답은 출구의 질문에 따른 종속성이 강요되지 않는 셈이다.

김극기(金克己)의 '도성을 떠난 3년 동안에 무슨 일을 이루었던고? 집으로 돌아오는 만리 길에 오직 이 몸뿐이로다.'[三年去國成何事, 萬里歸家只此身.]의 대구는 '아무런 일도 이루어 낸 것이 없다.'는 회답을 담았고[43], 김구용(金九容)의 '그대의 집은 어느 곳에 있는가? 내 찾아갈 길이 다시 없구나.'[君家是何處, 我住更無由.]의 대구는 '아득한 곳에 있다.'는 회답을 담았다.[44] 그러나 그것은 모두 직접적 제시가 아니라 다만 암시될 뿐이다.

순접의 부류에 속하는 복구형 유수대는 이상의 다섯 가지 종류가 대표적 집단을 이룬다. 선후 관계는 절차나 과정의 필연적 연속성을 계기로 성립하게 되는 종류다. 인과 관계와 점층 관계는 그러한 선후 관계를 자체에 내포하는 가운데 원인의 직접성을 강조하거나 결과의 가중치를 강조하는 종류다. 가설 관계는 인과 관계를 반전시켜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는 데서 성립한다. 문답 관계는 회답으로 제시하는 궁극의 진술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수사적 기교의 소산이다. 이밖에 조건 관계나 목적 관계로 엮이는 종류가 또한 있지만[45], 이들은 사례가 매우 드물어 따로 예시하지 않는다.

---

43 徐居正, 『東文選』 卷13-10a. 「[金克己]高原驛」 함련. ※百歲浮生逼五旬, 奇區世路少通津. […] 林鳥有情啼向客, 野花無語笑留人. 詩魔觸處來相惱, 不待窮愁已苦辛.

44 金九容, 『惕若齋先生學吟集』 卷下-30a. 「寄節齋先生」 함련. ※秋風正浩蕩, 回首望南州. […] 玉潤攬范轡, 氷淸登庾樓. 相逢開一笑, 絲竹振林丘.

45 孟繁穎, 앞의 논문, 111頁; 羅積勇·張鵬飛, 앞의 논문, 76頁.

寂寞荒村隱少微, 고요한 시골 마을에 처사가 묻혀 살아,
蕭條石逕接柴扉. 쓸쓸한 돌길이 사립문에 닿아 있다.
身同流水世間出, 몸이란 흐르는 물을 따라 세간에 나서도,
夢作白鷗江上飛. 꿈에는 흰 갈매기로 강기슭을 날더라.
山擁客窓雲入座, 산은 창문을 둘렀고 구름은 자리에 들며,
雨侵書榻葉投幃. 비는 책상에 들이치고 나뭇잎은 휘장을 때린다.
飄然又作投簪計, 훌쩍 또 비녀를 버릴 생각을 하니,
塵土無由染素衣. 진토는 그 흰옷을 물들일 길이 없구나.[46]

임억령의 증별이다. 파평산(坡平山) 아래 우계(牛溪)로 되돌아가는 성수침(成守琛)을 보내면서 읊었다. 함련은 성수침의 출처를 가리켜 말하는 바로서 특히 전절 관계로 엮이는 대우다. 당시에 성수침은 60세 나이에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삭녕(朔寧)·적성(積城) 등지의 현감에 잇달아 임명되기는 했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 전절 관계로 엮이는 복구형 유수대는 이처럼 출구의 의사를 문득 반전시켜 역류하는 대구를 세우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종류다.

한수(韓脩)의 '곤륜산 현포(玄圃)에 온 듯 청려한 경치를 기꺼워하였더니, 가인이 부르는 위성곡(渭城曲)을 다시 듣게 되는구나.'[已欣淸景移玄圃, 更聽佳人唱渭城.]는 청려한 경치에 만나 기뻐하는 의사를 뒤바꾸어 다시 떠나가야 하는 섭섭한 처지를 말했다.[47] 이행(李荇)의 '트이게 뚫어 낸 것은 비록 사람의 힘이나, 텅 빈 듯 맑은 것은 또한 네 저절로 가진 본성이다.'[疏鑿雖人力, 虛明亦爾眞.]는 샘물을 트이게 만든 인공의 의미를 뒤바꾸어 그것의 맑음이 자연의 본성에서 유래한 것임을 밝혔다.[48]

---

46 林億齡, 『石川先生詩集』 卷6-5a. 「用企齋韻送聽松還山」.

47 韓脩, 『柳巷先生詩集』 卷單-14b. 「宿原州客舍次板上韻」 함련. ※雉岳雲峯送雨行, 簷聲浙瀝晩涼生. […] 遊于躊躇多占意, 英雄寂莫有高名. 馬蹄到處嗟荒穢, 此境川原獨遍耕.

48 李荇, 『容齋先生集』 卷6-2a. 「石泉」 함련. ※玲瓏岩底水, 幾歲閉荊榛. […] 至平能鑑物,

許國身何有, 나라에 바쳤던 몸이 무엇을 아꼈으리?
成功命不侔. 공적을 이룸에 명운이 따르지 않았다.
漢皇雖好武, 한나라 황제가 비록 무예를 좋아했다고 하나,
飛將未封侯. 비장군(飛將軍)을 제후에 봉하지는 않았다.
苦戰知無賴, 어려운 싸움에 지원군이 없기는 했으나,
生降亦可羞. 살아서 항복한 것은 또한 부끄러워할 만했다.
高臺啣落日, 드높은 무덤이 지는 해를 머금되,
爲爾故遲留. 이런저런 생각에 발길을 머뭇거린다.[49]

이곡(李穀)의 이릉대(李陵臺) 회고다. 비장군(飛將軍)은 곧 이릉의 할아버지 이광(李廣)을 가리키는 바로서 흉노가 외경(畏敬)의 뜻을 담아 부르던 별명이다. 이광은 자신의 실수로 흉노와 겨루는 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자결했지만, 이릉은 흉노에 투항하여 끝까지 귀환하지 않았다. 함련은 양보 관계로 엮이는 대우다. 이것은 흉노가 이릉을 우교왕(右校王)으로 삼아 후대했던 것을 돋보이게 하는 말이다. 양보 관계로 엮이는 복구형 유수대는 출구의 내용에 대한 부분적 긍정을 전제로 대구의 내용이 반전의 의미를 드러낼 때에 성립하게 되는 종류다.

최연(崔演)의 '비록 술을 살 만한 값어치는 없어도, 또한 몸을 덮을 깜냥은 된다.'[雖無沽酒價, 亦足庇身謀.]는 갖옷이 낡고 헐어서 값어치가 나가지 않음을 긍정하는 가운데 그처럼 허름한 채로나마 몸을 따스하게 덮을 만은 하다는 값어치를 강조했다.[50] 유득공(柳得恭)의 '우번(虞翻)의 지기(知己) 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증삼(曾參)의 하루 세 번 살피는 공부만 못하다.'[縱有

不畜故無塵. 來往時抔飮, 還如太古淳.

49 李穀, 『稼亭先生文集』 卷18-6b. 「李陵臺」.

50 崔演, 『艮齋先生文集』 卷10-19a. 「裘」 제1수 함련. ※季子久爲客, 誰憐擁弊裘. […] 不必求狐腋, 何須索雉頭. 空懷工部攬, 永夜意悠悠.

虞翻知己一, 不如曾氏省身三.]는 선비로서 지기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자부심을 긍정하는 가운데 하루 세 번 살피는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51]

역접의 부류에 속하는 복구형 유수대의 전절 관계와 양보 관계는 서로 유사하여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중국어 화용론 연구자 일반은 'A, 但是B' 형식의 관계사를 보이는 전절구(轉折句)와 '雖然A, 但是B' 형식의 관계사를 보이는 양보구(讓步句)를 모두 전절 복구의 하위에 두어 양자의 완전한 분기를 인정하지 않는다.[52] 실제로 전절 관계와 양보 관계는 출구의 내용에 대한 부정의 정도와 그에 따른 역접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절 관계는 대구가 출구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의미가 완전히 역류하지만, 양보 관계는 대구가 출구의 내용을 긍정하되 대세는 다만 역류하는 양상을 보인다.

Ⅳ. 맺음말

유수대는 출구와 대구가 상호 필연적 관계로 의존하고 있어서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함부로 생략할 수 없고 또한 그 순서가 특수한 논리적 관계에 따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전후의 위치를 함부로 도치시킬 수 없는 대우를 말한다. 이러한 대우는 인공의 의미를 이미 벗어난 천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은 모든 대우의 예술적 이상이다. 우리의 시가예술사 자료는 유수대의 거의 모든 종류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창작

51 柳得恭, 『泠齋集』 卷1-31b. 「戲贈李營將」 함련. ※蓋堂淸淨早依參, 偃室絃歌屢迂澹. […] 李君淸望榮今御, 柳惠遺風抱者慙. 空敎仲宣成賦句, 誰憐太史滯周南.

52 尹洪波, 「現代漢語轉折復句新論」, 『漢語學報』 2020年 1期(2020), 72頁; 吳文斌, 「轉折復句分類研究回顧」, 『今古文創』 2021年 14期(2021), 124~125頁.

양상을 보인다. 그러는 만큼 유수대에 관한 심미 인식도 매우 깊었다.

유수대는 율시가 요구하는 바의 격률을 충실히 지키는 가운데 지극한 자연성을 추구하는 유수구의 심미적 효과를 아울러 얻고자 하는 창의적 설비다. 유수대는 형식상으로 보면 전후로 놓인 두 시구가 반드시 대우를 이루되, 내용상으로 보면 두 시구에 담긴 의사가 흐르는 물처럼 이어져 실제로는 하나의 시구나 다름이 없는 유수구를 이룬다. 유수구를 이루는 계기는 전후로 놓인 두 시구의 어느 한 쪽을 함부로 생략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필연적 상호 의존에 있다. 유수대를 이루는 계기도 핵심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출구와 대구에 작용하는 상호 의존의 필연성이야말로 모든 유수대의 본질적 원리다.

평행대와 마찬가지로 유수대도 배열의 균제를 보인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의미의 연관이 핵심적 기제다. 의미의 연관이 흐르는 물처럼 유동하는 기세를 낳는다. 균제와 연관의 통일은 유수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유수대는 평행대를 잇달아 사용하는 데서 생기는 부자연성과 정체성의 폐단을 소거하는 예술적 장치로 쓰였다. 율시의 격률을 따르는 가운데에도 격률의 제약을 익숙히 능가하는 표현이 이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유수대의 창조적 활용을 계기로 근체시 양식의 예술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단구형 유수대를 이루는 부분 분할의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 종류에 이른다. 곽여의 기증시 함련[三十年前同擢第, 一千里外各栖身.]은 서술어 분할 방식이다. 정도전의 적거시 함련[棲鳥聖知來宿處, 野人驚問是誰家.]은 목적어 분할 방식이다. 정두경의 찬송시 함련[還將八條敎, 來作九夷居.]은 부사어 분할 방식이다.

복구형 유수대의 출구와 대구가 보여 주는 논리적 관계는 다양한 종류에 걸친다. 김정의 증별시 함련[孤雲隨去馬, 落葉沒行蹤.]은 선후 관계다. 임억령의 술회시 경련[浮海知今是, 趨名悟昨非.]은 인과 관계다. 김창협의 기행시

함련[不有騎牛過, 那成並馬來.]은 가설 관계다. 정포의 회인시 함련[已堪悲歲暮, 況復憶君時.]은 점층 관계다. 김시습의 영물시 함련[如何在庭際, 定欲近人前.]은 문답 관계다. 임억령의 증별시 함련[身同流水世間出, 夢作白鷗江上飛.]은 전절 관계다. 이곡의 회고시 함련[漢皇雖好武, 飛將未封侯.]은 양보 관계다.

유수대와 평행대는 율시에 쓰이는 두 벌의 대장에 있어서 상보적 기능을 맡는다. 유수대는 대치하지 않고 유동하는 까닭에 동어반복의 합장이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장을 하려 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유동하는 까닭에 또한 공대를 이루기 어렵다. 유수대의 이러한 예술적 성격을 모르면 율시의 본질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단구형 유수대 3종류와 복구형 유수대 7종류는 최소한의 발견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에 더욱 전면적인 조사와 자세한 연구를 통하여 유수대의 예술적 성격이 충분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金昌協,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제162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8.

金九容, 『惕若齋先生學吟集』: 『韓國文集叢刊』 제6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韓國文集叢刊』 제33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金時習, 『梅月堂詩集』: 『韓國文集叢刊』 제13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金淨, 『冲庵先生集』: 『韓國文集叢刊』 제23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盧守愼, 『穌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제35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徐居正·梁誠之 等撰, 『東文選』. 太學社, 1975.

成汝學, 『鶴泉先生集』: 『韓國文集叢刊』 제82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申欽, 『象村稿』: 『韓國文集叢刊』 제71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柳得恭, 『泠齋集』: 『韓國文集叢刊』 제260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2000.

李健, 『葵窓遺稿』: 『韓國文集叢刊』 제122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8.

李穀, 『稼亭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제3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6.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韓國文集叢刊』 제1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6.

李達, 『蓀谷詩集』: 『韓國文集叢刊』 제61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李穡, 『牧隱詩藁』: 『韓國文集叢刊』 제5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6.

李睟光, 『芝峯類說』.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한古朝91-50).

李珥, 『栗谷先生全書』: 『韓國文集叢刊』 제44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李寅燁, 『晦窩詩稿』: 『韓國文集叢刊』 제172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8.

李稷, 『亨齋先生詩集』: 『韓國文集叢刊』 제7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李荇, 『容齋先生集』: 『韓國文集叢刊』 제20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李滉, 『退溪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제30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林億齡, 『石川先生詩集』: 『韓國文集叢刊』 제27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林椿, 『西河先生集』: 『韓國文集叢刊』 제1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6.

鄭道傳, 『三峯集』: 『韓國文集叢刊』 제5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6.

鄭斗卿, 『東溟先生集』: 『韓國文集叢刊』 제100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鄭士龍, 『湖陰雜稿』: 『韓國文集叢刊』 제25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鄭誧, 『雪谷先生集』: 『韓國文集叢刊』 제3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6.

趙緯韓, 『玄谷集』: 『韓國文集叢刊』 제73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趙泰億,『謙齋集』:『韓國文集叢刊』 제89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8.
崔演,『艮齋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제32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崔致遠,『桂苑筆耕集』:『韓國文集叢刊』 제1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6.
崔致遠,『孤雲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 제1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6.
韓脩,『柳巷先生詩集』:『韓國文集叢刊』 제5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6.
黃廷彧,『芝川集』:『韓國文集叢刊』 제41집.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許筠,『國朝詩刪』.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소장본(고811.1085 허17a).

葛立方,『韻語陽秋』:『文淵閣四庫全書』 第1479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高棅,『唐詩品彙』:『文淵閣四庫全書』 第1371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杜甫,『杜詩詳註』:『文淵閣四庫全書』 第1070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5.
王安石,『唐百家詩選』:『文淵閣四庫全書』 第1344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李商隱,『李義山詩集注』:『文淵閣四庫全書』 第1082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嚴羽,『滄浪詩話』:『文淵閣四庫全書』 第1480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蔡夢弼,『草堂詩話』:『文淵閣四庫全書』 第1481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
胡震亨,『唐音癸籤』:『文淵閣四庫全書』 第1482冊.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5.

2. 단행본
申用浩,『漢詩形式論』.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1.

3. 논문
강민호,「流水對의 美學 硏究」.『中國文學』 제76집, 2013, 43~67쪽.
유현경,「접속과 내포」.『國語學』 제60집, 國語學會, 2011, 389~410쪽.
이우철·성윤숙,「중국어 단문 복문의 경계 연구」.『언어과학연구』 제61집, 2012, 207~232쪽.
全基廷,「중국어와 한국어 복문의 비교」.『中國語文學論集』 제112집, 2018, 81~105쪽.

譚汝爲,「"流水對"辨誤」.『中國語言文學資料信息』 1999年 2期, 85~86頁.
羅積勇·張鵬飛,「流水對類型新論」.『武漢大學學報』 2009年 1期, 72~78頁.
孟繁穎,「論流水對」.『綏化學院學報』 2008年 6期, 110~112頁.
吳文斌,「轉折復句分類硏究回顧」.『今古文創』 2021年 14期, 123~125頁.

尹洪波, 「現代漢語轉折復句新論」. 『漢語學報』 2020年 1期, 71~79頁.
張靜·唐元, 「論經典詩法"流水對"的歷史發展源流」. 『中國韻文學刊』 31卷 2期, 57~60頁.

국문초록

유수대는 출구와 대구가 상호 필연적 관계로 의존하고 있어서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함부로 생략할 수 없고 또한 그 순서가 특수한 논리적 관계에 따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전후의 위치를 함부로 도치시킬 수 없는 대우를 말한다. 이러한 대우는 인공의 의미를 이미 벗어난 천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은 모든 대우의 예술적 이상이다.

출구와 대구에 작용하는 상호 의존의 필연성은 모든 유수대의 본질적 원리다. 평행대와 마찬가지로 유수대도 배열의 균제를 보이기는 하지만, 유수대의 핵심적 기제는 의미의 연관이다. 흐르는 물처럼 유동하는 기세가 여기서 나온다. 유수대는 평행대를 잇달아 사용하는 데서 생기는 부자연성과 정체성의 폐단을 소거하는 예술적 장치다. 유수대의 창조적 활용을 계기로 근체시 양식의 예술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유수대와 평행대는 상보적 기능을 맡는다. 유수대는 대치하지 않고 유동하는 까닭에 합장이 아예 불가능하고 또한 공대를 이루기 어렵다. 유수대의 이러한 예술적 성격을 모르면 율시의 본질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단구형 유수대 3종류와 복구형 유수대 7종류는 최소한의 것이다. 향후에 더욱 자세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투고일 2021. 12. 9.
심사일 2022. 1. 10.
게재 확정일 2022. 2. 10.
주제어(keyword) 유수대(Flowing Antithetical Couplet), 평행대(Parallel Antithetical Couplet), 상호 의존(Interdependence), 균제(Symmetry), 연관(Association)

Abstract

The Creative Aspects of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in Traditional Poems Written Chinese

Kim, Tae-hwan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refers to the couplet that since the sentence of couplet leading and following are mutually dependent on each other inevitably, either one cannot be omitted and also since the order is fixed according to a special logical relationship, the position before and after cannot be inverted arbitrarily. This kind of couplet is a product of nature that has already departed from the artificial meaning, and therefore this is the artistic ideal of all couplet.

The inevitability of interdependence acting on the sentence of couplet leading and following is an essential principle of all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As like parallel antithetical couplet,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shows uniformity in arrangement, but the core mechanism of the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is the association of meanings. The momentum that flows like flowing water comes from here.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is an artistic device that eliminates the negative effects of stagnancy and unnaturalness caused by the successive use of parallel antithetical couplet. With the creative utilization of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the artistic maturity of modern style poetry from the Tang Dynasty could be achieved.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and parallel antithetical couplet have complementary functions. Since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moves without confrontation, it is impossible to form complete synonymous of the sentence of couplet leading and following at all, and it is also difficult to achieve accurate antithesis. If we do not know thes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it means that we have not fully grasped the essence of eight line poems. Three types of one-way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and seven types of two-way flowing antithetical couplet considered in this paper are the minimum instances. A more detailed study should be continued in the future.